

이트너스, 기업 맞춤형 선물 플랫폼 오픈

<감동타임>

임직원 가정의달 서비스
주문·배송 원스톱으로 처리



임직원 맞춤형 선물 플랫폼 '감동타임'

이트너스가 5월을 앞두고 임직원을 위한 맞춤형 선물 플랫폼 '감동타임'의 가정의달 서비스를 오픈했다. 각종 행사가 많은 5월, 기업 임직원 대상 선물 서비스를 강화하고 다양한 큐레이션으로 총무·인사 등 담당자의 업무를 대폭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감동타임은 이트너스가 25년 동안 쌓은 경영지원플랫폼을 기반으로 글로벌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2000 곳이 넘는 고객사 임직원이 선호하는 선물 데이터를 통해 선물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취득한 특허(B2B 클라이언트에 최적화된 근로자 기념품 지원 서비스)를 바탕으로 기업 임직원을 위한

맞춤형 큐레이션부터 주문, 배송, 정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번 5월 가정의달 서비스는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맞춤형 서비스를 구성했다. 감동타임의 선물 큐레이션은 임직원의 선택지 조합을 선호도 데이터에 따라 큐레이팅하는 것이 특징으로 단순히 카탈로그를 보고 고르는 방식보다 보편성은 물론 트렌드에 충실한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해외에

서 근무하는 주재원에게도 제공이 가능하다.

더불어 감동타임은 인사·총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특화돼 있다. 전자계약으로 상품 소싱부터 수량 조정, 원하는 주소 배송, 정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담당자의 업무 공수를 덜어 분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현재 대부분 기업의 복리후생은 채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대기업 제도를 중소·중견 기업이 사치를 두고 따라가는 형태다. 최근 B2B 선물하기 추세는 본인에게 주는 것보다 입학, 어린이날 선물 등 자녀 관련 선물이 선호도가 높고 만족도도 크다. 상품 소싱은 전문 MD들이 담당한다. 정기적인 회의를 거쳐 임직원의 성별, 나이, 선호도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선택지를 제공한다. 기업소비자간거래(B2C)

선물하기 시장과도 차별화했다.

업계에 따르면 B2B 선물하기 해외 시장은 일본이 가장 앞서간다. 일본은 사내 임직원 선물뿐만 아니라 기업 간 VIP선물 시장까지 발달해 전체 선물하기 시장 가운데 70%를 B2B가 차지한다. 반면 한국은 B2B시장의 규모가 10% 수준에 불과하다. e커머스 시장 활황으로 온라인 선물시장은 2027년 1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오프라인 선물시장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 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주영 큐레이션사업부장은 "25년 동안 쌓아온 이트너스 브랜드가 가장 큰 장점으로 고객사에 주는 신뢰도가 크다"면서 "고객사에 특화된 큐레이션을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직원 정신건강 케어하겠다” 인성정보, 케이터봄과 협약

온라인 검진·전문의 구성

인성정보가 기업정신건강 서비스 시장에 진출, 헬스케어 사업을 확장한다. 인성정보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케이터봄과 기업정신건강 서비스 독점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성정보가 제공하는 기업 정신건강 서비스는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문제를 완화해 직원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이다. 근로자는 본인의 정신 건강 상태를 의학적 기준으로 파악해 전문 상담을 받는다. 기업은 임직원 정신건강 상태의 정확한 진단과 원인 파악을 통해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온라인 기반 정신건강 검진, 정신건강 전문가그룹 평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케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국내 자살률은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25.2명으로 OECD 평균(10.6명)의 2배를 웃돌며 다년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

다. 혁신방안은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 정신건강검진을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정책 등을 담았다.

인성정보는 이러한 사회적 여건에 발맞춰 기업 정신건강 서비스를 자사 헬스케어 플랫폼인 오케이닥(Ok DOC)의 브랜드를 통해 다양한 기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오케이닥은 기존 재외국민 대상 의료 상담 플랫폼에서 인성정보의 토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확대된다.

케이터봄은 2016년 설립 후 개인비대면 클리닉 서비스,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기업 정신건강 서비스, 전문의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원종윤 인성정보 대표는 "이번 계약을 통해 다양한 기업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직원 정신건강 케어를 케이터봄과 함께 추진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인성정보 플랫폼인 오케이닥이 이번 기회를 통해 토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어드밴텍 "엠티 시생태계를 위해" 엠티 인공지능(AI) 기업 어드밴텍은 최근 열린 체육대회 행사에서 엠티 시생태계 구축을 향한 의지를 담아 판화를 제작했다.

지사설립 1년 노보센스, 한국 전장시장 영향력 확대 기대

칩설계·검증 AEC 표준 충족

"한국 전기차·전장 시장에서 노보센스(NOVONSENSE) 브랜드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잠재 고객들이 노보센스와 파트너 관계를 원하고 있고, 일부 제품은 대량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김동석 노보센스 한국지사 상무는 올해 노보센스의 한국 전장 시장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사 설립 1년 만에 브랜드 정립



김동석 상무

이 안정권에 들어가며 공급량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이다. 노보센스는 2013년 설립 이후 10년 넘게 전기 시스템 운용, 아이솔레이션·인터페이스, 전력·드라이버 등 자동차, 정보통신, 가전 각종 산업군에 사용하는 종합 반도체 솔루션을 제공하며 인지도를 키우고 있다.

글로벌 표준과 안전 기준을 광범위하게 충족하고 있다는 점은 노보센스의 경쟁력이다. 특히 자동차 전장 분야는 핵심이다. 2016년 첫 자동차용 칩을 출시한 이래, 신뢰할 수 있는 품질 정책을 고수했다. 칩 설계, 검증, 양산 전 과정에서 자동차전자위원회(AEC) 표준을 따르고 있다.

김 상무는 "자동차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수년 전부터 자동차 제품을 개발해 왔고, 조영에서부터 차체, 도메인 제어, DCDC/OBC/PDU, 열 관

리 등까지 다양한 기술 노하우를 갖췄다"라면서 한국 자동차업계와의 파트너십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노보센스 제품은 넓은 온도 범위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 구조 설계를 변경하지 않아도 칩 자체가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갖춘 범용 패키징 형태로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노보센스는 거의 모든 고전압 시스템에 존재하는 회로 안전 절연 기술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운다는 목표다. 김 상무는 "한국 시장에서 노보센스의 인지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더 많은 잠재 고객의 협력을 희망한다"면서 성장을 기대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씨씨미디어서비스, 시리즈B 투자 유치...내년 IPO 순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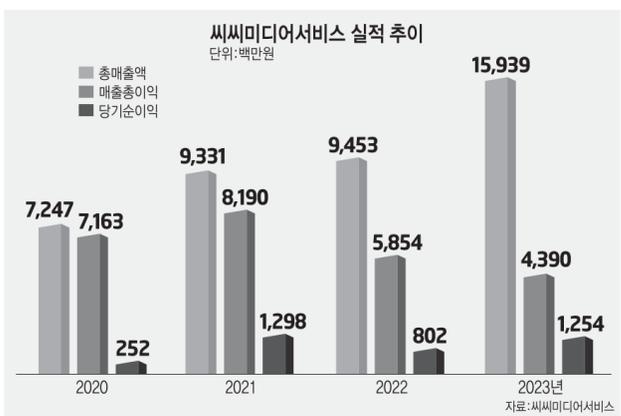
3년간 매출 연평균증가율 31%
현대차 탄소사업 잇따라 수주

씨씨미디어서비스가 시리즈B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해 시리즈A에 이어 또 한번의 투자 유치로 내년 목표로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 작업도 순항이 기대된다.

씨씨미디어서비스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BNK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하이투자증권, SK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가 출자자(LP)로 참여한 시리즈A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

이에 이어 최근 KB증권, BNK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등을 통해 시리즈B 투자를 성료했다. 이번 투자는 씨씨미디어서비스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높게 본 KB증권이 새롭게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KB증권은 대표 주판사로서 씨씨미디어서비스의 IPO 작업을 견인한다.

씨씨미디어서비스는 최근 3년 간 매출 연평균증가율(CAGR) 30.75%



를 기록하며 고속성장했다. 매출은 2022년 95억원에서 지난해 159억원으로 증가했다.

성장세 배경으로는 대기업·공공기관 빅데이터 및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꾸준히 수주한 것과 더불어 ESG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한 것이 꼽힌다. 씨씨미디어서비스는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벌 등의 탄소 관련 사업을 잇따라 수주하며 미래 먹거리를 준비했다. 씨씨미디어서비스는 내년 IPO를

목표로 영업조직 확충, 최고재무책임자(CFO) 영입 등 사업 기반을 강화했다. 나이스디앤비로부터 'T-2' 기술성 평가를 인증 받은 기술력으로 다수의 특허 등록과 수상 이력을 갖췄다. 회사는 2010년 설립 이래로 'eBrother' 브랜드의 빅데이터 에코플랫폼(eFM, eBP, eDSP) 사업 등을 전개하며 꾸준히 성장했다. 블록체인 사업 확대와 ESG 사업 진출을 통한 사업역량 강화와 더불어 △소통·출

거음 △고객 최우선 △최고기술 향환 도전 3대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인력 육성과 기술개발에 힘썼다. 직원 소통과 팀워크를 위해 2012년 처음 시작한 글로벌 워크숍은 올해 13회차를 맞아 3월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나트랑에서 열렸다.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기상청, 환경공단, 저작권위원회, 데이터진흥원, 도로공사 등의 다수 공공기관과 신한금융, 우리금융 등 금융·민간 기업의 대용량 데이터 수집·저장·처리·분석·시각화와 데이터 포털 등의 업무를 원활히 지원했다.

블록체인 분야는 한국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카드, 하나증권, 미래셋증권 등과 조계공사, 호서대 등에서 CBDC 실증, STO, NFT, 전자지갑, 디지털 위임장 등의 사업을 수행했다.

지난해 신설한 ESG 사업부는 현대차에서 블록체인 기반 공급망 탄소이력관리플랫폼의 성공적인 개발완료로 인정 받아 올해 글로벌 탄소관리플랫폼 구축 사업에 새롭게 착수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어드밴테스트 CEO에 더글라스 르피버 선임

한국지사 대표엔 차재혁

어드밴테스트 코퍼레이션은 부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인 더글라스 르피버를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

르피버 CEO는 1998년 어드밴테스트에 입사해 25년 동안 근무했다. 그는 베리자와 에스트로닉스 인수를 통해 성과를 냈다.

신임 CEO 지원을 위해 그룹 공동 COO인 츠쿠이 코이치 부사장이 사장 겸 대표이사를 맡는다. 이번 인사가 어드밴테스트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게 회사 설명이다.

르피버 CEO는 "막중한 책임을 수반하는 임무"라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할만한 성과와 지원책을 만들고, 이를 유지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기존 CEO 요시다 요시아키는 이사회 의장을 맡는다.

한국 지사 어드밴테스트코리아는 차재혁 영업본부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그는 1999년 어드밴테스트코리아에 입사, 메모리 세일즈 영업부서장과 영업본부장 및 본사 집행 임원으로 회사 성장에 기여했다.

차 신임 대표는 "어드밴테스트코



더글라스 르피버



차재혁

리아가 매출액 증대를 통해 한단계 레벨업하는 기업이 되도록 힘쓰겠다"며 "글로벌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SoC부문 사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어드밴테스트코리아는 다국적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기업 어드밴테스트의 한국 법인이다. 어드밴테스트는 반도체 검사 장비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다. 테스터, 핸들러,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등을 세계 반도체 생산라인 테스트 공정에 공급한다.

어드밴테스트코리아는 2013년 5월 천안에 최첨단 생산시설을 갖춘 신공장을 구축했다.

반도체 소자 기업이 제조하는 반도체 양품 여부·기능 정상 여부를 검사하는 최적 장비를 생산·공급한다. 한국 파트너사들의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임종권기자 lim9181@etnews.com

비투엔, 30일까지 상반기 공개채용

비투엔은 상반기 대규모 신입 및 경력직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개채용은 전 직급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사람인, 잡코리아 등 취업 포털에서 진행한다.

모집 부문은 △데이터전략컨설팅 △데이터모델링 △데이터거버넌스 컨설팅 △DBA/SQL튜닝 △데이터 아키텍트 △데이터분석 △빅데이터/클라우드 △거버넌스솔루션개발 △AI/ML 기반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 △분산트랙잭션관리플랫폼개발 △영업 △인사총무 △경영기획 등이다.

절차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실무전형 등 직무마다 다르다. 전형 및 절차, 응시자격, 직무 설명, 복리후생제도 등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취업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태일 비투엔 대표는 "이번 대규모 인재 영입과 조직개편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객들의 요구에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제를 구축하려 한다"고 말했다.

임종권기자 lim9181@etnews.com

국내·해외 규격인증
KES since 1985

국가공인인증시험기관
EMC · RF · TELECOM · 전기안전 · SAR · 무선충전기

KC(국내) 유럽 미국 공인시험기관

(☎) KES www.kes.co.kr T.031-425-6200 KES